

# 神仙道와 益山 金馬의 廢彌勒寺

— 益山の 廢彌勒寺는 神仙道の 伽藍이었다 —

안 창 범

(사범대 윤리교육과)

## < 차례 >

- I. 問題의 提起
- II. 神仙道の 由來와 思想
- III. 神仙道の 成立背景
- IV. 益山 金馬의 廢彌勒寺는 神仙道の 伽藍이었다
- V. 百濟 武王 益山の 廢彌勒寺 創建說 批判

### I. 問題의 提起

지금까지 우리민족은 고유철학도 고유종교도 없는 민족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상고사를 연구해 보면 배달국 시대(단기앞 1565년간)에 이미 桓雄天皇에 의해 실해진 神仙道가 있었다. 신선도는 불변적 진리인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의 天道를 발생원리로 하여 한대민족·열대민족·온대민족 등 세계인류를 발생학적 배경으로 실해진 弘益人間 理化世界를 목적으로 하는 참종교였다. 道·佛·儒 三教一體思想과 天符經·三一神誥·參佺戒經 등의 經典과 三倫·五戒·五倫·八條·九誓 등의 戒律과 그밖에 蘇塗祭天儀式 등 종교적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합리적 成立宗教였다<sup>1)</sup>. 이에 대한 실재적 근거로서 『三國遺事』 阿道基羅篇를 보면 新羅의 古都 鷄林에 前佛時代의 일곱 절터가 있다 하고, 同書 遼東城育王塔篇을 보면 滿洲 遼東에 三重土塔이 있었다고 하였다. 『桓檀古記』 檀君世紀에도 滿洲 寧安에 寧古塔이 있었다고 하였다.

1) 神仙道에 대한 문제는 안창범, 「잃어버린 배달사상과 농양사상의 기원」(서울 : 국학자료원, 1996)을 참조하기 바람.

그밖에 현재도 누구나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全羅北道 益山郡 金馬面 箕陽里 彌勒山 (一名 龍華山) 남쪽 기슭에 약 2만 3천여 평에 달하는 광대한 넓이의 彌勒寺址가 있다. 미륵사지는 史蹟 第150號로서 이를 1980년부터 1986년까지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가 발굴조사한 결과 三院三塔 並置式의 伽藍配置로서 고대 동양의 가람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는 특수한 형식의 거대한 가람이었음이 밝혀졌다<sup>2)</sup>. 현재에도 국보 제11호의 西院石塔과 寶物 第236號의 幢竿支柱 二基가 남아있다.

그러면 廢彌勒寺는 어느 시대의 가람이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에 대한 기록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北道 益山郡 佛宇條을 보면 廢彌勒寺는 後馬韓의 武康王이 창건한 가람이라 하였고, 『三國遺事』 紀異第二 武王條에는 신화적인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廢彌勒寺를 百濟의 제29세 武王이 창건한 가람이라 하였다. 전자는 B.C. 2세기 초로서 석가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에 이미 미륵사가 지어졌다는 기록이며, 후자는 A.D. 7세기 전반기로서 석가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미륵사가 지어졌다는 기록이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기록이 있다. 그러면 어느 기록이 옳은 기록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古佛敎인 神仙道가 상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처음부터 무시해 버리고 후자인 『三國遺事』의 신화적인 기록에 따라 百濟의 제29세 武王이 廢彌勒寺를 지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밖에도 後馬韓의 武康王과 비슷한 王號를 가진 百濟의 제24세 武寧王이 창건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4)</sup> 이와 같이 본의는 아니라 해도 민족사가 혼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신선도에 대해 간략히 개관하고,

둘째, 익산군 금마의 廢彌勒寺는 後馬韓의 百濟(伯濟) 武康王에

2) 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1), 文化財管理局, 1989, p.21.

3) 前掲書,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를 보면 모든 학자가 익산의 미륵사를 백제의 무왕이 창건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4) 李內燾, 『叢書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1, p.550.

의해 창건된 前佛時代의 伽藍 즉 신선도의 가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셋째, 종전 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한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 II. 神仙道の 由來와 思想

### 1. 神仙道の 由來小考<sup>5)</sup>.

『한단고기』에 따르면 신선도는 지금으로부터 근 1만년 전 중앙아시아의 天山 桓國 桓因時代부터 비롯된다. 그이후 환국의 말 지금부터 약 6천년 전, 지구상의 일기변동으로 인해 세계인류가 크게 이동할 때, 桓雄天皇이 風伯·雨師·雲師 등 3천의 교도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天山 桓國에서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이르러 지금(단기 4329년 현재)으로부터 5892년 전 10월 3일 三神一體의 天道를 크게 깨닫고 교화를 베풀었으니 그 사상이 곧 神仙道이다. 신선도는 후세에 까지 전승되어 古朝鮮(三韓)에서는 天神教, 扶餘에서는 代天教, 高句麗에서는 敬天教, 新羅에서는 崇天教, 渤海에서는 眞宗教, 遼나라와 金나라에서는 拜天教, 滿洲에서는 主神教라 불리었고, 고려 시대까지도 王儉教로 그 명맥이 다소 유지되다가 元나라 몽고군이 고려를 근 1백년 간 지배할 때에 그 탄압에 못이겨 불교 속으로 편입되고 말았다. 오늘날 10월 3일의 開天節行事가 곧 환웅천황이 천도를 크게 깨달아 신선도를 처음으로 강설한 기념행사인 것이다. 그러나 신선도의 종교적 체계가 밝혀지지 않고 巫教로 취급됨으로써 開天節의 開天을 곡해하여 “하늘이 열리다”로 해석하는 등 開天節의 行事를 迷信으로 취급하는 宗教集團들도 있고, 檀君王儉이 朝鮮國을 건국한 기념행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5) 본 항목에서는 각주를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저『민족사상의 원류』(교문사, 1990)와 『한민족의 신선도와 불교』(국학자료원, 199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2. 神仙道の 三教一體思想

그러면 우선적으로 신선도의 기본사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崔致遠鸞郎碑序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崔致遠鸞郎碑序 曰 國有玄妙之道 曰 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sup>6)</sup>.

위의 원문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최치원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이는 종교 설립의 원천으로써 신선도의 사서(史書)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도·불·유) 3교의 사상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이를 테면 집에 들어온 즉 효도하고 나아가면 즉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공자(사구는 공자의 벼슬)의 교지와 같고,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함은 주나라 노자(주사는 노자의 벼슬)의 종지와 같으며,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석가모니(축건태자)의 교화와 같다<sup>7)</sup>.

이상의 崔致遠鸞郎碑序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선 원문에 표현된 概念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면 鸞郎 즉 花郎道·玄妙之道·風流道·宗教·神仙道·實乃包含三教가 서로 等式關係이며 同系思想이다. 實乃包含三教란 근본적으로 道·佛·儒 三教一體의 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즉, 신선도나 화랑도 그리고 풍류도는 모두 동계사상이며 현묘지도로서 모든 종교의 원천이며,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 지닌 합리적 종교라는 뜻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궁에 빠

6)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24. 眞興王 37年條.

7) 原文의 設教은 說教와 다른 뜻으로 “종교를 세우다·종교를 이르키다·종교를 창설하다”의 뜻이며, 包含은 包涵과 다른 뜻으로 “원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且如는 “이를테면……같다. 이것은……같다. 다시 말하면……같다”는 뜻이다.

졌던 신선도의 사상이다. 여기에서 신선도는 迷信이나 自然宗教가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합리적 成立宗教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三教一體의 의미를 부연해설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道·佛·儒 사상을 지닌 一物三面的인 體一用三·執一含三·會三歸一 사상이란 뜻으로 신선도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종교라 할 수 있으니, 신선도를 나누면 道·佛·儒가 되고, 도·불·유를 歸一하면 신선도가 되어 神仙道는 도·불·유의 原流가 되고, 道·佛·儒는 신선도의 支流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상을 비교하여 보면, 신선도는 노자의 도교나 석가의 불교 및 공자의 유교 등 이들 종교의 원류가 되고, 이들 종교는 신선도의 지류가 된다. 그래서 신선도는 이들 종교의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면 古道教·古佛教·古儒教가 되며, 신선도를 설한 한인·한웅·한검은 古仙·古佛·古聖이 되고, 동시에 三仙·三佛·三聖이 된다. 즉, 한인·한웅·한검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sup>8)</sup>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성인이시고 부처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印度를 南天竺이라 하면 倍達國과 古朝鮮은 부처님이 세운 나라로서 北天竺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sup>9)</sup>, 동시에 神仙之國이었으며<sup>10)</sup>, 君子之國이었고<sup>11)</sup>, 東方禮儀之國이었으며, 須彌世界였고, 인도의 詩聖 타고르의 말대로 아득한 옛날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났던 등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중국이나 인도의 문화만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중국이나 인도로 까지 수출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道·佛·儒는 老·釋·孔에 의해서 集大成되었고 창안된 종교인데, 이들 종교보다 신선도나 화랑도가 先行宗教라면 어떻게

8) 「환단고기」 三聖紀全下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6천년전 중앙아시아의 天山 桓國 庶子部에서 한웅천황이 우리나라의 백두산으로 이동하여 천도를 대각하고 신성도를 베풀어 신시를 이룬다. 여기에서 天山의 山과 庶子部の 部자를 생략하면 한웅천황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서자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한인과 한웅과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9) 「山海經」, 海經 卷十八, 海內經에 朝鮮을 天毒이라 했고, 天毒은 天竺을 의미한다.

10) 李仁老(柳在永 譯), 「破閑集」(跋), 一志社, 1978, p.264.

11) 「山海經」 卷九, 海外東經.

선대의 사상이 후대의 사상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道·佛·儒 사상이 모두 천도에서 발원되고 역수입됐음을 밝히면 풀리게 된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道·佛·儒 사상이 역수입됐다는 문제는 논외로 한다. 다만 신선도의 발생학적 원리와 그 배경만을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 Ⅲ. 神仙道の 成立背景

#### 1. 神仙道の 發生原理

한응천황이 天道를 大覺하여 三神으로 신선도를 창설하였다고 하였다. 三神이란 무엇인가? 『桓檀古記』에 高麗八觀記를 인용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약술하면 三神이란 天一의 造化作用과 地一의 教化作用과 太一의 治化作用을 의미하고, 이를 쓰임(用), 그 본체(體)를 一上帝 곧 하나님이라 하였다<sup>12)</sup>. 즉, 하나님의 작용을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 三神이며, 三神은 天一·地一·人一을 의미하고, 三神의 具體的 作用은 인간을 비롯하여 만유를 낳고 양육하며 교육시키고 가꾸며 다스리고 벌을 주기도 하는 造化·教化·治化로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나, 풀 한 포기나 나고 자라고 죽는 것도 모두 三神하나님의 作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神하나님은 三神一體에 대한 종교적 경칭이라 할 수 있고, 三神一體는 우주운행의 근본원리 또는 만유가 生成消滅하는 원인으로써 天道를 의미한다<sup>13)</sup>.

12) 金殷洙譯, 『桓檀古記』, (太白逸史, 三神五帝本紀), 가나出版社, 1985, pp.124-25.

13) 桓因·桓雄·桓儉을 三神이라 지칭하는 경우, 桓因을 하늘님(天一), 桓雄을 한울님(地一), 桓儉을 한얼님(人一)에 대응시켜 천도 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역사적 실존인물로서의 桓因·桓雄·桓儉의 三聖을 神敎的으로 표현하여 三神이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안창범, 『한민족의 신선도와 불교』, 국학자료 원, 1993, pp.123-125 참조).

## 2. 三元的 稟賦와 三神一體와 三教一體 思想의 成立

### 1) 三元的 稟賦와 三神一體의 連關性

그러면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어떻게 道·佛·儒 三教一體의 神仙道가 발원되는가의 문제이다. 三神一體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의 완성된 體系나 生命體를 三元的 契機로 본다. 즉 이 우주의 구성을 天一·地一·人一의 三元的 契機로 보고, 三神이 萬物에도 그대로 나타나 人體系의 구성도 三元的 稟賦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三一神誥』 眞理訓에 人體系는 氣·心·身의 三房으로 구성되고, 그것은 命·性·精의 三眞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거기에서 다시 息·感·觸의 三門이 생긴다고 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이 신선도에 서는 인체계도 3원적 품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三神一體와 三元的 稟賦와의 關係를 밝히면 天一은 息·氣·命, 地一은 感·心·性, 人一은 觸·身·精과 불가분적 연관성을 지닌다. 이를 설명하면 天一은 天氣를 의미하는데, 天氣는 햇빛(햇벌)·달빛·별빛·공기 등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체계의 息(호흡)·氣(원기)·命(목숨)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곧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은 일순간도 숨을 쉬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햇벌을 쬐이지 아니하면 원기가 떨어지어 시들어 죽게 된다. 이와 같이 天氣는 인간의 호흡·원기·목숨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人命은 在天이라 한다. 地一은 地氣를 의미하는데, 地氣는 땅에서 나는 물(水)·植物·穀物 등을 의미한다. 그것이 인체에 섭취되면 체질을 형성하고, 체질은 感(느낌)·心(마음씨)·性(성품)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sup>15)</sup>. 즉 음식물에 따라 체격이 비대할 수도 있고 여위워질 수도 있으며 감정과 성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A형 체질에 A형 성격이, B형 체질에 B형 성격이 갖

14) 三一神誥 眞理訓.

15) 이는 지기(地氣)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품이라는 유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유교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으로서 천원·지일·인일의 삼신일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의해하기 바란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에는 지기(地氣)의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의해해야 할 것이다.

드는 것이다. 이래서 땅이 각박하면 사람들도 각박하고 땅이 두텁고 기름지면 사람들도 후덕하다고 한다. 人一은 人氣를 의미한다. 人氣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遺傳을 의미한다. 유전은 사람의 觸(육체적 감각)·身(몸가짐)·精(정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즉, 관능적인 욕구와 신장의 크고 작음과 행동 그리고 정기의 세고 약함 등이 유전과 불가분적 연관성을 지닌다. 그런가 하면, 예컨대 삼신일체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것이 삼신일체의 공동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목숨(命)도 天氣·地氣·人氣의 共同作用, 다시 말하면 햇빛·공기·음식물·유전 등의 공동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성품(性)도 정기(精)도 모두 햇빛·공기·음식물·유전의 공동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杏村 선생도 “도가 하늘에 있으면 그것이 三神이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三眞이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sup>16)</sup>. 三眞이란 命·性·精을 의미한다.

## 2) 三元的 稟賦와 三教一體의 成立

그러면 이상의 三元的 稟賦에서 어떻게 道·佛·儒의 三教一體 사상이 발원되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도·불·유의 교육목적부터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도·불·유는 서구종교와 다르다. 西歐宗教가 사후에 天國誕生을 목적으로 한다면, 道·佛·儒는 人格完成과 현세에서의 天國建設을 목적으로 한다. 즉 道教는 불로장수하는 神仙을 지향하고 현세에서의 地上仙境建設을 목적으로 하며, 佛教는 무사불통하는 見性成佛을 지향하고 佛國土建設을 목적으로 하며, 儒教는 立身揚名하는 聖人君子를 지향하고 大同世界建設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도·불·유의 경전은 모두 智仁勇 三達德 내지 知德體 三育을 닦는 修養書이다.

여기에서 도·불·유의 수양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道教는 무엇보다도 不老長壽(長命)를 목적으로 養氣를 위해 調息을 기본으로 하고, 佛教는 見性を 목적으로 明心하고 止感을 기본으로 하며, 儒教는 精誠을 목적으로 修身하고 禁觸을 기본으로 한다. 다시 말하

16) 金殷洙譯, 前掲書(太白逸史, 高句麗國本紀), p.278.

면, 숨을 면면히 고르게 씩으로써 원기를 길러 불로장수를 추구하는 사상이 도교이고, 모든 감정을 억제하고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함으로써 타고난 천부적인 지혜의 각성을 추구하는 사상이 불교이며, 모든 관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행실을 닦아 정성스러운 인격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교이다.

여기에서 이들 삼교의 수양방법을 인체계의 三元的 稟賦와 아울러 생각하면 調息·止感·禁觸은 息感觸의 三門을 닦는 것이며, 養氣·明心·修身은 氣心身の 三房을 닦는 것이고, 長命·見性·精誠은 命性精의 三眞을 닦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계의 三元的 稟賦인 息·氣·命에서 道教, 感·心·性에서 佛教, 觸·身·精에서 儒教가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會三經』에도 明心은 止感이고, 養氣는 調息이며, 修身은 禁觸이라 하여<sup>17)</sup> 調息을 道教의 養氣에, 止感을 佛教의 明心에, 禁觸을 儒教의 修身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를 보아도 위의 소론이 정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東學을 설파한 崔濟憲 선생도 말하기를 “儒·佛·仙(도교의 고전적인 표현)은 天道의 一部分이니 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と 仙의 養氣는 人性의 自然한 稟賦이며 天道의 固有한 部分이니 우리의 道는 그 無極大源을 잡은 者이다”고 하였다.<sup>18)</sup> 이를 음미해 보면 儒의 倫理는 修身이며, 佛의 覺性은 明心함에 있고, 仙의 養氣는 氣를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氣·心·身을 닦고 기르는 것이 道·佛·儒라는 것이다. 氣·心·身은 곧 人體系의 三房이다. 따라서 東學의 道·佛·儒 三教一體사상도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발원된다는 것이다. 동학의 일파인 水雲教의 經典 『東道全書』에도 “이 세가지를 나누어 말하면 儒·佛·仙 三家의 가르침이요, 합하여 말하면 하나의 天道라”하고 있다<sup>19)</sup>. 그러므로 신선도의 道·佛·儒 三教一體 사상은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의 天道를 發生原理로 하고, 인간의 천부적이고 이성적 욕구인 不老長壽와 見性成佛과 聖人君子의 志向을 목적으로 성립되고 있는 것이

17) 『會三經』, 三我.

18) 李敦化 編述, 『天道教創建史』, (第一編), 景仁文化社, 1982, p.47.

19) 水雲教本部, 『水雲教經典』, (東道全書), 平和堂印刷社, 水雲降生 159, p.156 에 “此三者를 分之曰三家之教요 合之曰 一天之道라”하 였다.

다<sup>20)</sup>.

여기에서 道·佛·儒 三教一體의 신선도는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의 天道에 의해 발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丹書口訣』에도 “天·地·人을 三才라 하고, 道·佛·儒를 三教라 하니, 三才가 바로 서면 이에서 三教가 나온다”고 하여<sup>21)</sup> 이상의 소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崔致遠鸞郎碑序의 기록이 틀림없고 신선도를 설한 한웅천황은 부처님이며 대성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三大人種과 三神一體와 三教一體 思想의 成立

#### 1) 三大人種의 性格과 三神一體의 連關性

세계인류는 크게 나누어 白人種·黑人種·黃人種으로 나누고, 이들 인종이 현재는 세계 각 곳에 살고 있지만 백인종은 원래 한대지방에 살았던 寒帶人種이며, 흑인종은 열대지방에 살았던 熱帶人種이고, 황인종은 온대지방에 살았던 溫帶人種이다. 또한 한대인종은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肉食人種이고, 열대인종은 초목의 열매를 주식으로 하는 草食人種이며, 온대인종은 육류와 곡류의 혼식을 주식으로 하는 混食人種이다.

우선 기온에 따른 이들 3대인종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정치·종교·교육의 영향을 받기 이전 순수한 자연상태에서의 성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大人種의 現在性格과는 전적으로 일치할 수 없음을 의해하기 바란다. 孔子께서 이르기를 “너그럽고 부드러운으로써 가르치고 무도한 자에게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남방의 강함이니 君子가 이에 처하느니라. 무기와 갑옷을 깔고서 죽어도 싫어하지 아니함은 북방의 강함이니 강퍽한 자가 이에 처하느니라”하였다<sup>22)</sup>. 이는 남북의 기온 차이에서 오는 인종의 성격을 말

20) 이렇게 볼 때, 道·佛·儒 三教는 원래 일정한 역할의 한계를 지니고 한 뿌리에서 나온 사상으로서 서로 분리되면 원만한 인격을 닦을 수도 없고 완전한 道를 성취하기도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곧 道·佛·儒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21) 李鍾殷 譯註, 『海東傳道錄·青鶴集』, 普成文化社, 1986, p.181.

22) 『中庸』 第十章 : 寬柔以教하고 不服無道는 南方之疆也니 君子居之니라. 程金

한 것으로 남방의 열대지방 인종은 마치 인자한 군자 같아서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북방의 한대지방 인종은 마치 용감한 군인 같아서 두려움이 없고 강폭하다는 것이다. 즉, 북방의 한대지방 인종은 남성적이고, 남방의 열대지방 민족은 여성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온대지방의 기온은 따뜻하고 서늘하며 다양하다. 그래서 온대지방 인종은 연예인이나 학자와 같이 낙천적이고 평화적인가 하면 가치관이 너무나 다양하여 혼란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온대지방 인종은 남성과 여성의 중간 곧 중도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食生活에 따른 三大人種의 性格이다. 식생활은 인간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동물을 예로 들면, 肉食動物은 사납고 草食動物은 온순하다. 그와 같이 식생활과 인간의 성격도 불가분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면 백인종인 한대지방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 인종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육류를 주식으로 한다. 육류를 주식으로 함으로써 체력이 역세다. 체력이 역세므로 그 성격도 야성적이다. 야성적이므로 무서운 것 없이 적극적 투쟁적 활동적 현실적이다. 이래서 백인종인 한대지방 사람들의 성격은 원래 남성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은 잔인하여 그들의 사회는 弱肉強食의 社會인데, 이를 닮아서 때로 백인종인 한대지방 사람들은 잔인하고 인간사회의 약육강식을 자기의 생존을 위해 당연한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백인종은 이기적이고 지배적이며 잔인하다. 이는 정치·종교·교육의 영향을 받기 이전 원래의 성격을 초식인종이나 혼식인종에 비유할 때 그렇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흑인종인 열대지방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 인종은 더위를 피하여 나무 밑에서 주로 살고 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한다. 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하므로 체력이 약할 수 밖에 없고, 체력이 약하므로 그 성격도 온순할 수 밖에 없다. 온순하므로 정적 수동적 소극적 무저항적 이상적일 수 밖에 없다. 이래서 흑인종인 열대지방 사람들의 성격은 원래 여성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무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생하지 못하고 군생하며 서로 의지하여 지낸다.

그와 같이 초식인종인 열대지방 사람들은 인간사회를 호혜적 조화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들 인종의 본성이 아니었던가 추정된다. 이것 역시 정치·종교·교육의 영향을 받기 이전 원래의 성격을 육식인종이나 혼식인종과 비유할 때 그렇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다음 황인종인 온대지방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온대지방 사람들은 육식도 초식도 모두 겸하는 混食人種이다. 그래서 황인종인 온대지방 사람들의 성격은 육식인종과 초식인종의 성격을 모두 겸하게 되어 원래 강인한가 하면 온유하고, 정적인가 하면 동적이며, 수동적인가 하면 능동적이고, 무저항적인가 하면 저항적이며, 현실적인가 하면 이상적이고, 이기적인가 하면 이타적이며, 개인주의적인가 하면 협동적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곧 중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정치·종교·교육의 영향을 받기 이전 육식인종과 초식인종에 비유할 때 그렇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Hippocrates(B.C.460-375)도 온난한 기후는 주민으로 하여금 평화를 사랑하게 하고, 한서(寒暑)가 심한 곳에는 무용이 뛰어났다고 하였으며, Aristoteles(B.C.384-322)도 한지민은 대담하고 난지민은 복종과 굴종에 만족한다고 했다<sup>23)</sup>.

이들 三大人種의 性格을 三神一體에 부합시키면 한대지방 사람들의 남성적인 성격은 天一에 해당되고, 열대지방 사람들의 여성적인 성격은 地一에 해당되며, 온대지방 사람들의 중도적인 성격은 人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는 한대인종·열대인종·온대인종의 일체 곧 萬民一體를 의미하기도 한다.

## 2) 三大人種의 性格과 三教一體 思想의 成立

그러면 이들 三大人種의 性格과 신선도의 도교·불교·유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앞에서 天一은 寒帶人種, 地一은 熱帶人種, 人一은 溫帶人種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天一에서 道敎, 地一에서 佛敎, 人一에서 儒敎가 발원된다는 것도 밝혔다. 여기에서 한대인종과 도교, 열대인종과 불교, 온대인종과 유교는 서로 어떠한

23) 劉明鍾, 『韓國思想史』, 以文出版社, 1982, p.9.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東洋에서의 宗教라는 뜻은 교육의 기본틀 내지 교육의 기본지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神仙道는 弘益人間 理化世界建設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신선도는 전체인류를 교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각 민족 또는 인종의 자질이나 성격에 있어서 훌륭한 점은 이를 더욱 신장시키고, 모순점은 이를 극복하는 것이 교육목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道·佛·儒·三敎의 基本思想은 곧 白·黑·黃 三大人種의 性格이나 資質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백·흑·황의 3대인종과 도·불·유 3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白人種은 원래 寒帶人種이고 또 육식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그 성격에 있어서 장점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점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단점은 이기적이고 포악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道敎는 無爲自然主義를 기본사상으로 함으로써 한대인종의 성격상 장점인 활동성과 적극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같이 소박한 심리상태로 돌아가기를 가르침으로(復歸於嬰兒) 한대인종의 성격상 모순인 이기심과 포악성을 다스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도교는 한대인종에게 적합한 종교라 할 수 있다.

黑人種은 원래 熱帶人種이고, 또 草食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그 성격에 있어서 장점은 이상적이고 너그러운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단점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현실에 안주하여 사회적으로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불교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을 가르쳐 열대인종의 훌륭한 성격인 이상과 관용성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성과 활동성을 고취시킬 수 있고, 皆有佛性 내지 生命平等思想을 가르침으로 그 사회의 차별대우를 타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열대인종에게 적합한 종교라 할 수 있다.

黃人種은 원래 溫帶人種이고, 또 육식과 초식을 혼식함으로써 그 성격에 있어서 장점은 낙천적이고 평화적이라 할 수 있으나, 단점은 가치관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혼란에 빠지기 쉽고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교는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가르쳐 온대인종의 성격상 장점인 낙천성과 평화지향성을 살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생활덕목 예컨대 三綱五倫을 가르침으로 혼란한 가치관의 통일을 이루고 개인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는 온대인종에게 적합한 종교라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도교와 원시 기독교는 서로 유사한데<sup>24)</sup> 기독교가 서구 한대인종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으며, 불교가 한때 열대인종 사회인 인도에서 꽃을 피웠었고, 지금도 동남 아시아에 보편화되고 있다. 유교 또한 그 실체를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온대인종 사회인 동양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도교는 백인종, 불교는 흑인종, 유교는 황인종의 성격상 훌륭한 점을 더욱 신장시키고, 모순점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교·불교·유교는 백인종·흑인종·황인종의 3대인종에게 적합한 종교라 할 수 있고, 신선도는 만민일체를 발생학적 배경으로 성립된 고등종교요 참종교로서 현대종교 이전 선행종교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비록 상고시대라 하더라도 종교가 있었다면 사찰과 불탑이 있을 수 있으니 전북 익산 금마의 폐미륵사는 신선도의 가람이 아니었던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IV. 益山 金馬의 廢彌勒寺는 神仙道の 伽藍이었다.

##### 1. 金馬는 後馬韓의 古都였다.

우선 미륵사지가 있는 전북 익산의 금마는 과거 어떠한 곳이었다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李肯翊은 『燃藜室記述』에서 武康王은 朝鮮王 箕準이며, 衛滿에게 나라를 뺏기고 남으로 옮기어 金馬山(지금

24) 왜냐하면, 도교와 기독교에서는 다같이 우주생성 이전 태초의 상태를 혼돈상태로 보며, 도교의 道와 기독교의 여호와와는 다같이 어 디에나 없는데 없고, 원래 이름도 없는 것이다. 또 도교의 도는 하늘과 땅의 시초이며 만물의 어머니로서 조화의 이법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의 여호와신도 만물을 창조하는 조물주라 한다. 도교에서 살생을 묵인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살생을 묵인한다. 이는 모 세에 의해 개혁되기 이전의 원시 기독교를 도교에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교와 원시 기독교는 유사하다

의 益山)에 (後)馬韓國을 세웠다고 하였다<sup>25)</sup>. 『三國遺事』馬韓篇에도 魏志를 인용하여 “衛滿이 朝鮮을 치니 조선왕 準이 宮人과 左右의 가까운 臣下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韓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馬韓이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6)</sup>. 그 밖에도 『高麗史』地理志<sup>27)</sup>, 『後漢書』韓傳<sup>28)</sup> 등 여러 史書에도 金馬는 箕準이 南遷한 곳이며, (후)마한의 옛 도읍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믿겠는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黃壽永 박사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 혹은 首都經營의 條件으로 宮城·城郭·王陵·寺刹 등의 4개 조건을 들고 있다<sup>29)</sup>. 즉 이들 4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수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馬가 이들 4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後馬韓의 古都였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마의 주변을 보면 미륵산 정상에는 箕準(武康王)이 쌓았다는 箕準城(彌勒山城)이 있고, 중턱에는 師子庵이 있으며, 아래에 동방 최대의 石塔이 있는 彌勒寺址가 있다. 다시 서쪽 2km 지점 蓮洞에는 보물 제45호의 坐像石佛이 있다. 여기에서 서북 1km 지점에는 胎峰寺 三體三佛이 전한다. 다시 금마에서 서쪽 1km 지점에는 報德城址가 전한다. 이는 일명 五金山城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靑銅器遺物이 발견되어 더욱 주목을 끌게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금마에서 서남쪽 4km 지점에 雙陵이 있다. 이 쌍릉은 『高麗史』에 의하면 後朝鮮(後馬韓)의 武康王과 그 妃의 陵이라 하고, 일설에서는 百濟의 武王과 善花夫人의 陵이라고 한다. 금마에서 서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속칭 王宮坪이 널리 펼쳐져 있고 동남방 약 3km 지점에 王宮城이 있으며, 성내 남쪽에는 五層石塔이 있다. 이 왕궁성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이 城이 馬韓 時代의 城이라고 전한

25) 民族文化推進會 編(李肯翊 著), 『然黎宰記述』, (別集, 第19卷 歷代 典故, 三韓),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2, p.477.

26)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馬韓 : 衛滿擊朝鮮 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27) 『高麗史』, 地理志 : 金馬郡本馬韓國 後朝鮮王箕準避衛之亂 浮海而 至韓地 開國號馬韓 百濟始祖溫祚王并之 自後號金馬者.

28) 『後漢書』, 韓傳 :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 走入海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絕 馬韓人復自立辰王.

29) 前掲書,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p.31.

다<sup>30)</sup>.

이상과 같이 금마는 도읍지로서의 宮城·城郭·王陵·寺刹 등 4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세인의 전설도 금마의 유적은 마한 시대의 유적이라고 한다. 여기에 어떠한 선입견을 두지 않고 생각할 때, 금마는 삼국시대의 백제와 다른 문화권으로서 後馬韓의 古都라 아니할 수 없다. 李能和의 『朝鮮佛教通史』에도 益山을 馬韓의 古都라 하였다<sup>31)</sup>. 또한 益山을 月支國이라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sup>32)</sup>, 『三國遺事』 魚山佛影 篇에는 月支國을 北天竺이라 하고 있다<sup>33)</sup>. 북천축이란 남천축 인도에 대응하는 말로서 益山の 金馬가 宗教의 搖籃임을 의미한다.

## 2. 馬韓의 伯濟 武康王이 廢彌勒寺를 創建했다.

금마가 종교의 요람이었고 후마한의 고도였다면, 현재 폐지되어 없지만 미륵사는 당연히 후마한 시대 정부차원에서 지어진 가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廢彌勒寺는 거대한 사찰로서 민간차원에서는 지어질 수 없는 가람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륵사지 내의 석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극히 시원형의 석탑임을 보아도 폐미륵사는 후마한 시대의 가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彌勒寺는 龍華山(彌勒山)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武康王이 인심을 얻어 馬韓國을 세우고 하루는 善花夫人과 더불어 師子寺에 행하고자 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세 彌勒佛이 연못 속에서 나왔다. 부인이 임금께 아뢰어 이곳에 절을 지을 것을 원하였다. 임금이 허락하고 知命法師에게 가서 못을 메울 방법을 물었더니 범

30) 상계서, p.34.

31) 李能和 編, 『朝鮮佛教通史』(下), 中央大學校 韓國學 研究所, 1977, p.191(324); 又前於三國之馬韓之古都益山有朝鮮石塔最大者.

32) 『茶山의 『疆域考』(三韓總考)와 韓鑑古의 『海東譯史』(地理考)에서 月支國을 益山에 비정하고 있음. 國史編纂委員會 編, 前掲書, 『中國正史朝鮮傳』, (譯註一,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註 8, 月支國), p.296에서 재인용.

33) 李內齋 譯,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魚山佛影), 新華社, 1983, p.303. 印度를 南天竺, 古朝鮮을 北天竺이라 한다. 이에 대해 본서 제2부 제1편에서 상설된다.

사가 神力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으로 못을 메웠다. 이에 불전을 창건하고 또 세 미륵상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도와주었다. 石塔이 있는데 극대하여 높이가 여러 길이나 되니 동방의 석탑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고 하였다<sup>34)</sup>.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은 전설로서 신빙성이 그리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설은 그 민족의 신빙성을 나타낸다. 과거의 우리민족은 글을 써도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마치 명예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명예를 바라는 것은 진실하게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민족이 그만큼 진실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설이라 해도 우리민족의 경우 거기에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민족은 수 백번에 달하는 외침을 받음으로써 史書가 모두 멸실되었고 한이 맺힌 민족이다. 이를 생각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설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잘 연구하고 음미하면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증언이라 할 수 있고, 훌륭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李肯翊은 『燃藜室記述』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그대로 전제하고, 武康王은 (後)馬韓의 箕準임을 밝히고 남으로 옮긴 것은 漢나라 惠帝 丁未年이고, 新羅 眞平王의 卽位는 陳나라 宣帝 大建 己亥년이니 신라의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무강왕의 역사를 도왔다 함은 허황하다고 하였다<sup>35)</sup>. 이는 이공익 역시 삼국시대 이전 후마한의 무강왕과 선화부인에 의한 미륵사 창건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에 의하면 古朝鮮의 馬韓國에 54國이 있었고, 54국 가운데에 伯濟(文獻通考에는 佰濟)가 있었다<sup>36)</sup>. 三國遺事·高麗史·後漢書 등을 보면 朝鮮王 箕準이 衛滿에

34) 民族文化推進會,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3권, 全羅北道 益山郡 佛宇),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2, p.423.

35) 民族文化推進會(李肯翊 原著), 『燃藜室記述』, (別集, 第19卷, 歷代典故, 三韓)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2, p.478.

36) 前掲書,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p.282.

게 나라를 뺏기고 南遷하여 韓의 땅 곧 金馬에 이르러 馬韓國을 세웠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아울러 생각하면 폐미륵사를 창건한 마한의 무강왕 기준은 후마한국 백제의 무강왕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백공을 보내어 무강왕의 역사를 도왔다는 신라의 진평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의 문제이다. 新羅의 옛 이름을 斯盧 또는 尸羅라 한다. 安鼎福의 『東史綱目』을 보면 辰韓과 辨韓에 24國이 있었고 24國 중에 斯盧가 나오며<sup>37)</sup>, 『桓檀古記』 神市本紀를 보면 尸羅를 고조선의 管境이라<sup>38)</sup> 하였다. 또 三聖紀全(上)을 보면 扶餘 시대에도 新羅의 이름이 나온다<sup>39)</sup>. 이를 생각하면 공인을 보내어 무강왕의 역사를 도왔다는 新羅의 眞平王은 三國의 하나인 新羅의 眞平王이 아니라 三韓 시대 新羅(尸羅 또는 斯盧)의 眞平王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때는 석가불교가 전래되기 전이며 彌勒佛이 곧 神仙이고 神仙이 곧 彌勒佛로서<sup>40)</sup> 廢彌勒寺의 三院三塔은 三神思想의 표현이라 볼 때, 폐미륵사는 신선도의 가람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V. 百濟武王 益山の 廢彌勒寺 創建說 批判

그러나 필자의 견해와는 달리 三國의 하나인 百濟의 武王이 益山에 別都를 設置하여 彌勒寺를 창건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그 근거를 보면 『三國遺事』 武王篇과 金正浩의 『大東地志』 및 『觀世音應驗記』에 근거한다. 이제 이를 비판한다.

### 1. 『三國遺事』 武王篇의 記錄 批判

『삼국유사』 무왕 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37) 民族文化推進會(安鼎福 撰), 『東史綱目』, (제1사), 民族文化文庫刊 行會, 1982, p.178.

38) 상계서, p.144.

39) 김은수, 상계서, p.23.

40)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彌勒仙花 末尸郎 眞茲師.

제30대 武王(古本에는 武康이라 하여으나 잘못이다. 百濟에는 武康이 없다)의 이름은 璋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연못의 龍과 정을 통하여 璋을 낳고 아이 이름을 龔童이라 하였으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항상 마(薯蕷)를 캐어 팔아서 생활을 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다. 新羅 眞平王의 셋째 公主 淳花(혹은 淳化)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 서울로 가서 마를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꺾어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에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기(몰래) 얼어(嫁)두고 龔童房을 밤에 몰(몰래) 안고 가다”라고 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퍼져 대궐에 까지 알려지니 백관들이 임금에게 극간하여 공주를 먼곳으로 귀향 보내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향처로 갈 때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맞으며 시위하고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온지를 몰랐지만 우연이 믿고 기뻐하여 따라 갔으며 몰래 관계하였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게 되고 동요와 맞은 것을 알았다. 함께 백제로 가서 母后가 준 금을 꺼내어 생계를 도모하려하니 서동이 크게 웃으며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은 황금입니다. 한평생 부자가 될 만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이 흙과 같이 쌓여 있어.”

공주가 크게 놀라면서 말하였다.

“그것은 천하의 귀한 보배인데 당신이 지금 그것이 있는 곳을 알거든 그 보물을 가져다 부모님 궁전에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동이 “좋다” 하고 금을 모아 구름과 같이 쌓아놓고 龍華山(혹은 彌勒山) 師子寺의 知命法師에게 가서 금 수송의 방책을 물었다. “내가 神力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가져오세요” 하였다. 공주가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師子寺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가 신력으로 하루 사이에 신라 궁중에 갖다 놓았다.

진평왕이 신비로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존경하며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이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자 못 가운데서 彌勒三尊이 나타남으로 수레를 멈추고 경례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아뢰기를 “나의 소원은 이곳에 큰 절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었더니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드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彌勒三尊과 會殿·塔·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額號를 彌勒

寺(國史에는 王興寺라하였다)라 하니 진평왕이 여러 공인을 보내어 도와주었다. 지금까지 그 절이 있다(三國史에는 法王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獨女의 아들이라 전하니 자세치 아니하다)<sup>41)</sup>.

이상의 『三國遺事』 武王篇을 근거로 백제의 무왕이 금마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國遺事』 武王篇에서 말하는 武王은 원래 武康王이며 百濟의 第29世 武王이 아니다.

왜냐하면, 백제 제29세 武王은 제28세 法王의 아들인데, 『삼국유사』 무왕편에서 말하는 무왕은 獨女가 연목의 龍과 사통하여 낳은 사생아이다<sup>42)</sup>. 그리고 그 注를 보면 “古本에는 武康이라 하여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武康이 없다”하여 무강왕을 무왕으로 개칭하고 있다. 이는 『三國遺事』의 編者 一然 僧 역시 “(前)馬韓 54國 가운데 伯濟가 있었다”는<sup>43)</sup> 사실을 모르고, 또한 상고시대의 우리나라에 古佛敎인 神仙道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彌勒寺의 創建緣起를 백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武康王을 武王으로 개칭하고 있는 것이다. 璋이라는 이름 역시 무왕의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이며 무강왕의 이름이 아니다. 무강왕의 이름은 準이다.

둘째, 彌勒寺 創建緣起에 있어서 『三國遺事』의 記錄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

『三國遺事』 法王禁殺篇을 보면, “法王이 즉위한지 이듬해 경신에 30인의 新入僧을 두고 그때 서울인 泗泚城(지금의 扶餘)에 王興寺를 짓기 시작하더니 겨우 기지를 닦다가 昇遐하자 武王이 즉위하여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을 계승하여 수 십년(數紀)만에 낙성하였다. 그 절을 미륵사라고도 한다”고 하였다<sup>44)</sup>. 즉 백제의 무왕이

41)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武王.

42) 신선도에서 龍은 古朝鮮의 王을 의미하고, 연목은 백두산의 天池를 지칭한다고 보면, 무강왕은 비록 사생아라 하더라도 고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國史編纂委員會 編,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一,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販賣處: 教保文庫 中央圖書展示館, 1987, p.282.

44)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法王禁殺.

창건한 절은 왕흥사(미륵사)이며, 그 절을 창건한 곳은 백제의 서울인 사비성(지금의 부여)이다. 또 무왕 편에는 미륵사를 왕흥사라 하면서 익산 금마에 창건한 것으로 되었다. 이래서 두 기록이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백제의 무왕이 익산의 미륵사를 지었다 함은 모순인 것이며, 그가 지은 절은 익산 금마의 미륵사가 아니라 부여의 왕흥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武王 35년조를 보아도 무왕이 지은 절은 扶餘의 王興寺이다. 곧 법왕이 짓기 시작하여 무왕대에 완성되었다.

셋째, 地理的 條件이 맞지 않는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무왕 35년조와 『三國遺事』 法王禁殺篇에 의하면 백제 무왕이 창건한 절은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 보며 꽃과 나무가 수려하니 四時의 경치가 아름다워 왕은 매양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절에 가서 그 경치가 화려한 것을 찬탄하였다. 그래서 왕은 늘 배를 타고 절에 가곤하였다"<sup>45)</sup>. 그런데 익산의 미륵사 앞에는 강물이 없다. 즉 기록과 실재에 있어서 지리적 조건이 맞지 않는다.

넷째, 『三國遺事』 武王篇의 記錄은 二律背反的이다.

『삼국유사』 무왕편에 의하면 백제의 무왕은 신라 진평왕의 공주와 혼인하였다 하고,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백제의 무왕은 신라의 진평왕과 적대관계에 있어서 11차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는 장인과 사위 사이의 적대관계이며, 사돈과 사돈 사이의 전쟁이다. 이러한 일은 있다 하여도 극히 모순된 일이며,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진평왕이 여러 공인을 보내어 도왔다는 것도 서로 적대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삼국유사』 무왕편의 기록은 모순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기록에 근거하여 백제의 무왕이 익산 금마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함은 모순인 것이다.

45) 앞의 각주 참조.

## 2. 益山 別都設置說 批判

또한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하여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학설이 있다. 金正浩의 『大東地志』 卷11 전라도 익산 편을 보면 “益山은 본래 百濟의 金馬이니 武康王 때에 성을 쌓고 다른 수도를 설치하여 金馬渚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46)</sup>. 또 『觀世音應驗記』에도 “百濟의 武廣王(武康王)이 枳慕密地에 遷都하여 精舍를 새로이 경영하였다”고 하였다<sup>47)</sup>. 이에 근거하여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하고 미륵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sup>48)</sup>. 이를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시대의 百濟에는 武康王(武廣王)이 없다.

金正浩의 『大東地志』와 『觀世音應驗記』에 왕호를 무강왕(무광왕)이라 하였고, 무왕이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백제에는 무왕이란 왕호는 있으나 무강왕(무광왕)이란 왕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을 무강왕(무광왕)에 결부시킴은 역사의 왜곡이다.

둘째, 馬韓의 伯濟와 三國의 百濟를 혼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라면 무조건 삼국 가운데 하나인 온조왕이 세운 백제만을 연상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古朝鮮의 馬韓國에 54國이 있었고, 54國 가운데에 伯濟(伯濟)가 있었다. 그리고 三國遺事·高麗史·後漢書 등에 의하면 朝鮮王 箕準이 衛滿에게 나라를 뺏기고 南遷하여 韓의 땅 곧 金馬에서 (後)馬韓國를 세우고 武康王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김정호의 『대동지지』와 『관세음응험기』에서 말하는 “百濟와 武康王(武廣王)”은 삼국시대의 백제와 무왕이 아니라, 古朝鮮의 伯濟와 武康王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호의 『대동지지』와 『관세음응험기』에 근거하여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무왕이 익산 금마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함은 고대사를 자세히 검토치 못한

46) 金正浩, 『大東地志』, 卷十一, 全羅道 益山 : 益山本百濟今馬只武康王時築城置別都稱金馬渚.

47) 『觀世音應驗記』: “百濟武廣王遷都枳慕密地 新營精舍”. 前掲書, 『彌勒寺發掘調査報告書』, p.27에서 재인용.

48) 상계서, p.27.

데서 비롯된 역사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셋째, 百濟 武王의 益山別都 設置說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삼국의 하나인 백제에 무강왕(무광왕)이라는 왕도 없거니와 실사 29세 무왕을 무강왕(무광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무왕이 南遷하였다거나, 전라북도 익산 금마로 천도하였다거나, 다른 수도를 설치하여 성을 쌓았다는 기록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무왕의 재위기간 42년을 보면 전라북도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할만한 정신적 재정적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재위기간 중 고구려·신라와 치른 전쟁이 『삼국사기』만 보아도 11차례의 전쟁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角山城과 赤嶺城의 築造, 泗泚城과 馬川城의 改築이 있었고, 扶餘에 王興寺를 35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또한 그 사이에 기근과 흉년도 있었기 때문이다<sup>49)</sup>. 이를 생각하면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하였다 함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 3. 李丙燾의 百濟 武寧王 廢彌勒寺 創建說 批判

이병도는 익산 금마의 미륵사를 백제 제23세 東城王(479-501) 15년 이후에 창건이 시작되어 제24세 武寧王代(501-523)에 완공되었다고 주장한다<sup>50)</sup>. 이와 같은 이병도의 견해는 『삼국유사』 무왕편의 기록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는 무왕(600-641)과 진평왕(579-632)은 동시대의 인물이기는 하나 당시 백제와 신라는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진평왕의 공주와 무왕 사이의 혼인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필자 역시 같은 견해이다. 그러나 그 다음 그는 薯童은 곧 마동으로 그 발음이 東城王의 諱인 牟大·摩帝의 발음과 유사하다고 하여 서동을 동성왕으로 보고, 또 武康王의 康과 武寧王의 寧이 그 字義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여 무강왕을 무령왕으로 보았다<sup>51)</sup>. 그러나 이와 같은 언어학적인

49)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五, 29. 武王 篇 참조.

50) 李丙燾, “薯童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1981, p.550.

발음의 유사성과 자의의 유사성만으로는 무리가 많고<sup>52)</sup>, 하나의 억지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VI. 結 論

이상의 敍述을 要約 整理하면

- 1) 상고시대의 우리나라에 古佛敎인 神仙道가 있었다.
- 2) 神仙思想은 곧 彌勒思想이다.
- 3) 『新增東國輿地勝覽』에 益山 金馬의 廢彌勒寺를 馬韓의 武康王이 세운 절이라 하였다.

4) 益山の 金馬는 馬韓의 古都였다.

5) 馬韓의 武康王은 곧 馬韓 百濟의 武康王이다.

위의 5가지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全羅北道 益山郡 金馬面 龍華山 앞의 廢彌勒寺는 神仙道の 伽藍이었다고 結論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계에서는 위의 폐미륵사를 백제의 무왕이 창건하였다고 곡해한다. 그 곡해의 원인을 요약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곡해의 원인은 상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古佛敎인 신선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古朝鮮 시대에도 百濟와 新羅(尸羅·斯盧)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삼국시대의 백제 및 신라와 혼동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삼국시대의 百濟 武王이 益山 金馬에 다른 首都를 설치하였다는 것도 고조선의 백제와 삼국시대의 백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곡해이다.

넷째, 三國時代의 百濟 제28세 法王이 짓기 시작하고 제29세 武王이 완성한 절은 扶餘의 王興寺인데 부여의 왕흥사를 법왕이 창건한 절이라 하고<sup>53)</sup>, 익산의 미륵사를 무왕이 창건한 절이라 하여 부

51) 상계서, pp.531-542.

52) 前掲書,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I), p.23.

여의 왕흥사와 익산의 미륵사를 혼동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기민족에게 유리한 것을 부정하고 불리한 것을 믿는 우리나라의 괴이한 학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傳說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민족에게 유리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記錄을 부정하고, 불리한 『三國遺事』 武王篇의 記錄을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國의 하나인 百濟의 武王이 익산 금마의 폐미륵사를 창건하였다 함은 역사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학계의 진지한 자성을 촉구한다.